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철회를 위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서

일시: 2015년 8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NPO센터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탁틴내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한국YMCA)



# 목 차

-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	1
- 첨부자료 1) 기자간담회 개요	-----	29
- 첨부자료 2) 각계 발언 요지	-----	57
- 첨부 자료 3) 성명서 - 2015 교육부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	63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

일 자 : 2015년 8월 23일  
발 신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관련 담당 기자  
제 목 : 8/24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기자간담회  
알림  
문 의 : 박현이 기획부장 (아하! 성문화센터 02-2677-9220)  
나영정 상임연구원 (SOGI법정책연구회 010-9579-1215)  
잇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참 고 : 2차 보도자료(총 9매)

---

## 보 / 도 / 자 / 료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기자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는 올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 정보권,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3.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추진과정에서 성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보건교과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등 시대착오적, 비전문적,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성별고정관념을 그대로 담고 있고,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과연 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에 많은 전문가와 관련 단체, 언론에서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보다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추진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포될 자료집에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탁틴내일 등 각계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6. 이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기자간담회

일시: 2015년 8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첨부1. 기자간담회 개요

첨부2. 각계 발언 요지

첨부3.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기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54개소)

서울교육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홍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  
 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  
 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  
 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  
 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팁/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  
 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  
 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  
 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  
 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첨부 1. 기자간담회 개요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기자간담회

일시: 2015년 8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순서

사 회\_탁틴내일/ECPAT KOREA 이현숙 대표

- 1) 경과보고\_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남은주 대표
- 2) 청소년 성교육 단체 의견과 보건교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_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이 기획부장
- 3)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 의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주리 활동가
- 4) 교사 단체 의견\_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영선 교사
- 5) 여성 인권운동 단체 의견\_한국성폭력상담소 잇을 활동가
- 6)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의견\_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나영정 활동가
- 7) 장애청소년 성교육 단체 의견\_(사)탁틴내일 추국화 센터장
- 8) 한부모 가족 단체 의견\_인트리 쌤 최형숙 대표
- 9)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 첨부2. 각계 발언 요지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남은주 대표는 2015년 2월 교육부가 성교육 교과과정 지도안과 PPT, 동영상 제작·공개하고 14지 지침을 중심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성교육 전문가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는 4월 13일,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는 4월 21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고 보고하고, 그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2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하고 토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한번 부분적 수정으로는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수준이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이 기획부장은 보건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건교사 207명(초등 108명, 중등 41명, 고등 48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 ~ 8월 2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보건교사들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현재 보건교과서의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학생들 대상 평가를 실시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 보건교사들은 교육 내용에 대한 검열이고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 ▲각 학교가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체험형 성교육을 요청할 때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배치되는 내용을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해서 학생들의 성교육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연구과정에서도 연구과정에서 성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보수 단체와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집단의 입장만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1안, 2안, 3안의 비교를 통해서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진이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성인지적 관점이 낮다는 것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이 금욕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평등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1) 성교육 목적과 방향의 명확한 관점이 없고 2) 10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3) 금욕을 강조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4) 성별고정관념 강화, 성소수자 배제 등 성차별을 조장하며 5) 발달단계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6) 결혼에 대한 강조를 통해 부모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만을 강조하고 7) 잘못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시하며 8) 다양한 가족관계 배제하고 9) 생물학적 성지식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가 있고 10) 피임과 성매개 감염에 대해 제한적 설명이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잇을 활동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여성인권운동단체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잇을 활동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1) 성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고 2)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고 3)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있으며 4)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나영정 활동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하고 목적, 추진절차, 전달연수 내용, 표준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1) 목적 자체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성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 성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학생들을 위협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3)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없는 반성소수자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편파적으로 제작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권리협약 등은 성교육이 다양성과 포괄성의 가치를 수용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배격하고 피임이나 성병 등 성행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건강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탁틴내일 추국화 센터장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갖도록 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하였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며 2) 결혼, 부모 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강조 속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3)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에 대한 행동의 본질적인 구분이 오히려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를 취약하도록 하며 4) 성폭력 예방에서 피해자 유발론은 장애학생에게 특별히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 의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쥬리 활동가, 교사 단체 의견\_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영선 교사, 한부모 가족 단체 의견\_인트리 쌤 최형숙 대표 등이 각계의 입장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 첨부3. 성명서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참담하다. 도대체 창피해서 성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난 2월 교육부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억의 연구비를 들여 내놓은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수많은 사회적 질타와 국제인권단체의 공개서한을 비롯해 인권단체, 여성 및 청소년 성교육단체 등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각계의 민원 내용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고 청소년성문화현실을 무시한 금욕강요, 성차별 강화, 장애·한부모·성소수자 배제 등 인권침해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올해 초 교육부가 전국 교사들에게 실시한 ‘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전달연수 교사지킴 14가지를 철회 하고 ‘성교육표준안’에 의한 그 어떠한 교육적 집행도 전면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아무런 입장 표명과 답변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일선학교에 시달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446호’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의 극히 일부 부분을 수정한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을 뿐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공문에 의하면 여전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성교육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외부강사 활용 시에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되, 반드시 담당교사 입장지도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더욱더 강하게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수’를 명령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대체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학교 성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거나 한 걸까?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 흐름과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 학교 성교육 현실은 이렇다. 학교에서 성교육 담당자는 대부분 보건교사이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아픈 학생치료, 흡연지도, 비만지도, 성고충처리위원회 담당, 전염병 관리, 위생지도, 보건교육 등 수없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15차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교육부 지침은 일선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솔직하게 연간 3시간 성교육을 했다고 보고하는 교사에게 교육청에서는 서류라도 시간을 맞춰 채워 올릴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일선 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공공연한 현실이다. 그래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일선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반별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담당교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성교육시간에 입장지도를 하라니? 교안을 ‘사전검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현장에 입실 지도하라는 것인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성교육표준안’의 구체적인 교재 및 교안의 문제

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교육의 목적과 관점에 대한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 절차의 문제이다. 학교가 성교육을 왜 하는가? 학생이 건강권과 행복권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미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부 보수단체와 성소수자인권을 반대하는 단체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표준안이 어떻게 국가수준의 표준안이 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성’ 이 어떤 피해나 폭력의 이름,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자유롭고 건강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을 인정하며 성 평등적인 인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다시 한 번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1.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계획, 교원대상의 연수, 시범학교운영, 연말 평가등 모든 계획을 중단하라!!!

### 2.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개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라!!

소중한 국가의 자산으로 연구되어진 ‘성교육표준안’이 사회적인 파장이 되고 국제적 망신이 되었으며 일선 성교육현장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 한 것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교육부 장관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

2015. 8. 24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기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54개소)

서울교육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홍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 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 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 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 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 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 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 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 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 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 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 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목 차

- 청소년 성교육 전문 단체 의견 :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1
-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 대응 경과보고	-----	25
- 여성인권운동 단체 의견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	29
- 성소수자 인권단체 의견 : 무지개행동	-----	43
- 장애청소년 성교육 단체 의견 : (사)탁틴내일	-----	57
-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 의견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61
- 한부모 가족 단체 의견 : 인트리	-----	63
- 비혼여성 단체 의견 : 언니네트워크	-----	65
- 학교내 성교육 교사 모임 : YMCA 성교육교사회	-----	67
-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민원 신청의 건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69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의견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부 ‘2015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성문화의 현실과 동떨어진 반교육적인 성교육안으로 성교육 전문성이 없는 보수진영의 의견만 수렴한 편협적인 교육안입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지침과 교안에서는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임신과 출산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 중심 전달,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강화, 이성애주의, 결혼 및 정상 가족 모델 강조, 성폭력 예방교육의 후퇴, 동성애등 성소수자 배제 등으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인권 침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은 그동안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인권 단체 등)과 학교 보건교과에서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성교육 내용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내용으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목 차

1. 성교육 현장(보건교사, 성교육단체)의 혼란을 야기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문제점
2. ‘학교성교육표준안’ 연구 과정에서의 문제점
3. ‘학교성교육표준안’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본 주요 쟁점 사안
4. ‘학교성교육표준안’ 성교육 쟁점 사안과 처리내용

# 1. 성교육 현장(보건 교사, 성교육 단체)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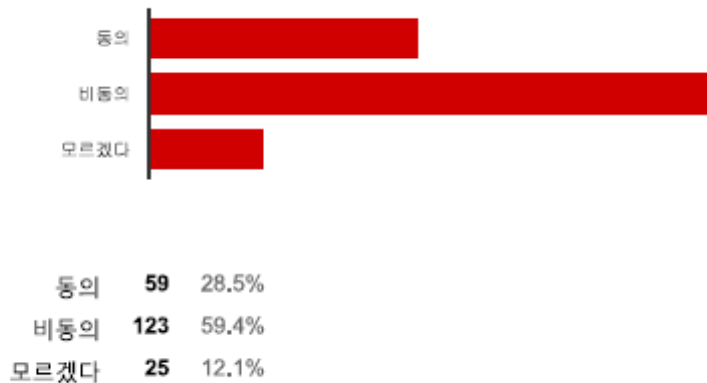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성교육담당(보건)교사 대상 설문조사

- 일시 : 2015년 6월 1일~8월 20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보건교사 업무 과다로 설문조사 참여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음)
- 대상 : 보건교사 207명(초등 108명, 중등 41명, 고등 58명)
- 주관 : 한국청소년문화센협의회(이하 한성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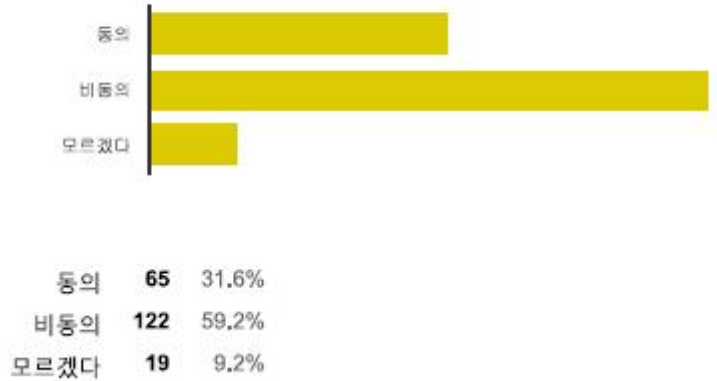
1-1. 보건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학교성교육표준안이 현재 보건교과서의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쳐야하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인권과 다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는 반면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는 다양한 가족과 성정체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말아야 하는 점, 그리고 성적욕망과 성행위 준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면서 결혼, 임신, 출산만 강조하는 점 등이 성교육을 후퇴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한성협: 보건교사 대상 설문 결과, YMCA성교육교사회 등 )

**2)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9. 다음은 성교육담당(보건)교사 전달연수에서 진행한 <성교육 표준안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동의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3) 동성애에 대한 지도 : 허용되지 않음 [9. 다음은 성교육담당(보건)교사 전달연수에서 진행한 <성교육 표준안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시오]



※ 보건교사의 의견 <설문조사결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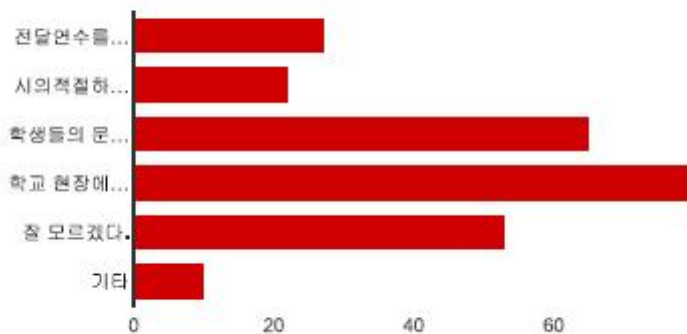
- ▶ 학생들의 문화와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포함됨. 학교 현장에 부합하지 않음. 실제로 교과시간에 성교육의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여 연계하여 수업할지 의문임.
- ▶ 중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고, 인터넷이나 음성적인 경로를 통한 정확하지 않은 성지식이 난무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성교육 표준안은 학생들이 알고 싶은 성에 대한 지식보다는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 학생들이 궁금하고 어른들에게 어려워서 물어볼 수 없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 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인권, 다문화교육은 가능하면서 성적소수자의 권리와 다양한 성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밑바탕에 둔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표준안인 것 같다.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획일화된 교육안으로 학생들의 가치 체계를 획일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절대 이 표준안으로 성교육을 할 의향이 없다.
- ▶ 가장 보편적이고 최저의 선에서 교육해야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대착오적

입니다. 또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닌 폐쇄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기보다는 학교 성교육 내용 시 주의사항 또는 성교육 내용 기준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하면 성교육시 표준 학습 지도안이라든지 성교육시 필수 교육내용 등을 제시해주는 안을 표준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본 순간 아 이제는 학생 성교육을 국가에서 제작한 내용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내용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서로 이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세상에 이미 다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성소주자에게 대한 것을 아이들은 궁금해하는데 다루지 말라고 하고.. 수업시간에 그거 다루면 안 된단다 애들아.. 이래야하나요?

-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학교 내 전달연수를 실시한 보건교사들에 의하면, 학교 일반 교사들의 반응이 ‘학교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표준안이라는 반응이 39.2%로 가장 많고, ‘학생들의 문화와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이 31.9%였다. (한성협:보건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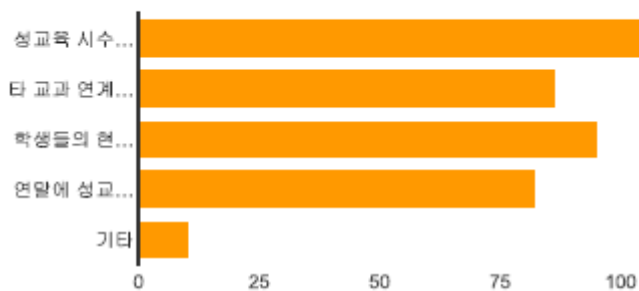
**11. 해당 학교에서 일반교사들에게 <성교육 표준안> 시행에 대한 전달연수 시행시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달연수를 하지 않았다.	27	13.2%
시의적절하다는 호의적 반응이었다.	22	10.8%
학생들의 문화와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이었다.	65	31.9%
학교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표준안이라는 반응이었다.	80	39.2%
잘 모르겠다.	53	26%
기타	10	4.9%

1-2. 성교육표준안 시행으로 성교육을 담당 보건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으로 ‘15시간 성교육 시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56.9%로 가장 많고, ‘학생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쳐야하는 부담이 있다’ 46.6%, ‘타 교과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 42.2% 순이었다. (한성협: 보건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YMCA성교육교사회)

**10. <성교육표준안> 시행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성교육 시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116	56.9%
타 교과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	86	42.2%
학생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쳐야하는 부담이 있다.	95	46.6%
연말에 성교육표준안에 따른 교육진행에 대한 학생대상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부담된다.	82	40.2%
기타	10	4.9%

**※ 보건교사의 의견 <설문조사결과 중>**

- ▶ 성교육 시수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러한 표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보건교사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부과나 다름없는 일일뿐입니다. 부디, 보건교사에 의한 현실적인 성교육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현장에 적합하게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 ▶ 성교육을 15차시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지 고려해보길 바란다. 관련교과를 포함해 끼어 맞추기식으로 15차시를 만들기는 하나 과연 그 수업이 실제적으로 성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 ▶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 표준안에 의거한 시수나 보건교육 시수 모두가 확보되기 힘든 상황이고 보건교사의 업무 또한 과중한 상태입니다. 실제 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를 생각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표준안도 중요하지만 수업시수 확보가 우선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이번 표준안은 표준이 아니라 편향적이라 생각된다.

1-3. 교육부가 학교성교육표준안 준수 여부에 대해 12월에 학생들 대상 평가를 실시한다고 점에 대해서, 보건교사들은 연말 평가 실시가 교육 내용에 대한 검열이고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YMCA성교육교사회)

※ 보건교사의 의견 <설문조사결과 中>

- ▶ 연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설문이 의미가 있는지 재고해 보길 바란다. 아이들 오늘 들은 수업도 내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제발 현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성교육 담당자로 생각한다면 실제적인 성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건교사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무런 지도서도 마련해주지 않고 교육만 실시하라고 하니 답답하다.

1-4. 학교에서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체험형 성교육을 요청할 때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준수 요청으로 ‘자위, 야동 및 동성애’ 등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성교육권을 방해하고 있다.

- ‘자위 및 야동이라는 용어, 동성애’ 내용들은 성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임. 갑자기 다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발달과 성문화 현황을 무시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질문을 할 경우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 ▶ 야동 같은 단어는 이미 사회적으로 익숙한 용어인데 무턱대고 용어사용 금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적인 수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필요하지만, 성소수자, 독신가정 등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중, 고등학교 아이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이 사회와 동떨어진다면, 보건교육의 의미는 더욱 사라질 것이다.
- ▶ 엄연히 아이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 예) 동성애- 찬반이 아니라 성장발달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 2. '학교성교육표준안' 연구 과정에서의 문제점

2-1. 연구 과정에서 성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보수 단체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집단의 입장만 수용하였다.

- '학생 성교육 모형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참고1]'에 의하면 1안(외국과 한국의 성교육 현황을 토대로 작성)이후 2안(동성애만 삭제), 3안(십대 성적자기결정권 배제, 성적 다양성 배제 등)으로 후퇴한 내용으로 교안이 짜여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 " 하고 " " 대하는 " " 단의 " " 장만 " " 용하였다.
- 최종 3안으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가족관계, 성소수자, 성욕구와 준비된 성관계,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 참고1 : ‘성교육 국가수준 표준안(안)의 구성안’에 대한 설명을 표로 요약한 자료 (연구용역보고서 2014.2. 351~353쪽)

	특 성	장 점	단 점	연구진의 입장
1안	연구 결과 얻어진 성교육의 내용체계를 중심으로 구성. 오늘날 세계적인 성교육의 경향과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구성원들의 요구사항, 관련교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내용을 근거로 함	성교육 내용체계의 구성에 있어 계열성의 유지나 학교별 심화과정의 연계, 영역별 균형 있는 내용구성 등이 바람직하다	사회집단 간, 계층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연구진이 희망하는 결과
2안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 중 가장 충돌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동성애(다양한 성적 지향이라고 함)에 대한 문제를 삭제하고 구성한 내용체계	사회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 밖의 양성평등, 성소수자, 성행위, 자위행위 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적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	
3안 (최종 선택)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다양한 가족관계, 양성평등, 성소수자, 성욕구와 준비된 성관계, 성행위, 자위행위 등)를 모두 삭제하고 구성한 내용체계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 간 갈등 문제를 모두 삭제했다는 점에서 구성원 간 충돌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학교별 구성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사회적 갈등 문제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성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 빠른 시간에 성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 간 충돌발생 가능성을 상정하고 갈등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소수자 혐오 집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성교육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중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보수진영의 의견만 수렴함

1-2.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용역 연구진이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성인지적 관점이 낮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이 금욕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평등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용역보고서[참고2]에 나온 ‘국가수준의 바람직한 성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 문항을 보면 성교육 전문성이 낮고 성평등적이지 못한 관점을 드러낸다. 설문 예시 문항을 보면 현재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동떨어진 ‘순결교육 위주로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순결교육과 피임 교육을 함께 한다’는 문항에서는 순결과 피임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의 내용을 한 문항 안에 함께 제시하고 있다. ‘양성평등 위주로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성소수자를 제외시킨 문장으로 ‘성평등 교육 위주로 한다’라고 변경해야 한다.
- ‘국가수준의 바람직한 성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용[참고2]을 보면 ‘순결교육위주로 교육한다’의 의견이 가장 낮고 ‘성인지교육 위주로 교육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또한 교사 면접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성평등, 성인지교육, 피임교육’ 등의 요청이 주가 이루고 있고 순결교육에 대한 의견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성교육표준안’에는 금욕 강조와 성인지적인지 않은 관점으로 구성되어서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2: 국가수준의 바람직한 성교육 추진 방향 (연구용역보고서 2015.2.118쪽)

<표 IV-79> 국가수준의 바람직한 성교육 추진 방향

사 례 수	국가수준의 바람직한 성교육 추진 방향																
	순결교육 위주로 교육한다		피임교육 위주로 교육한다		순결 교육과 피임교육을 함께 교육한다		대처 방안 위주로 교육한다		양성평등 위주로 교육한다		성인지 위주로 교육한다		기타		모름/ 무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초등학교	402	7	1.7	16	4.0	116	28.9	68	16.9	61	15.2	128	31.8	6	1.5	-	-
중학교	388	9	2.3	20	5.2	141	36.3	36	9.3	68	17.5	105	27.1	8	2.1	1	3
고등학교	319	4	1.3	22	6.9	105	32.9	31	9.7	60	18.8	93	29.2	3	0.9	1	0.3

■ ‘성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예시 문항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순결교육 위주로 한다’를 제시하였고, 이를 선택한 교사는 소수임.

- \*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성인지 위주로 교육 한다’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순결교육과 피임교육을 함께 교육한다’가 28.9% 이었음.
- \*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순결교육과 피임교육을 함께 교육 한다’가 각각 36.3%,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인지위주로 교육 한다’가 각각 27.1%와 29.2%로 응답하였음.

■ 교사 면접 조사에 의하면 양성평등, 성인지교육, 피임교육 등의 요청이 주를 이룸

- \* 교사 면접 조사에 의하면, 성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양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 대처방안 등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년별,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내용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성인지, 양성평등, 피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성인지+피임교육+대처방안’ 교육 중심으로 양성평등 등을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요하였음.
- \* 성교육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단계별 체계적 교육 과정 수립’, ‘성교육 시간을 온전히 확보’, ‘일반교사도 전문적 성교육 실시할 수 있는 환경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 3. '학교성교육표준안'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본 주요 쟁점 사안

3-1. 학교성교육표준안 지도서에 의하면 성교육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명확한 관점이 없는 혼란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도입 배경에서 해석의 여지가 애매한 '올바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도상 유의점으로 '다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학교성교육표준안 내용에는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도입 배경과 성격'의 내용에서 보면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식, 성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올바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 참고4 : 학교성교육표준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지도서 6쪽

##### 1.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도입 배경 中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로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성교육의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식, 성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다가치(多價値) 안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 능력 기르기'라고 되어있지만, 성교육표준안 내용에는 십대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다양한 가족 관계, 성정체성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 ※ 참고5 : 학교성교육표준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지도서 22쪽

##### (3) 지도상의 유의점

카) 성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가치의 주입보다는 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다가치(多價値) 안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 성교육표준안 매뉴얼에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발간 자료를 인용하면서 정확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내용상 맥락에 맞지 않게 인용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3-2. 생물학적인 성지식 중심의 교육 구성으로 10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10대의 성을 위험한 성으로 다루고 있다.

- 생식기 건강과 신생아 관리, 임신과 출산, 성병과 예방법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생식이 아닌 성은 위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학교 지도서 228~230쪽  
 :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입양의 문제를 부정적인 인식(평생 죄책감,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 괴로움, 자아정체성 혼란, 행복 모두 포기)과 심각한 결과 (학업중단, 영아유기,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로만 다루고 있음  
 =>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사회복지 제도적 지원은 다루고 있지 않음으로써 임신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없음

- 10대들이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성적인 존재로 보고, 성기와 성을 생식 기능의 성 안에서 설명하고 금욕을 요구함.

\* 중학교 지도서 155쪽  
 : 무분별한 성 욕구 충족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 청소년의 성욕구를 임신, 미혼부, 미혼모, 성병, 학업중단, 성폭력 등 성문제로만 설명함.  
성 욕구를 성관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제시하고 있음

3-3 금욕을 강조하는 성교육으로 인해 10대의 성행동에 대한 책임과 준비, 의사결정력과 협상력을 기를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 중학교 지도서에서 ‘임신, 태교, 출산, 성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피임’을 다루면서 금욕을 강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성행동에 대한 책임과 준비를 다

루지 않음 ⇨ 중등과정에서 성행동에 대한 책임과 준비, 의사결정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참고6 : 중학교 지도서 목차 中(20쪽)

성행 등	(1) 남녀의 성 인식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 고 인간이 갖는 성적 존재로서의 남녀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한다.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li> <li>성적존재로서의 인간이해</li> </ul>
	(2) 성 욕구와 금욕	청소년기의 금욕과 성 욕구 조절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성 욕구의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충동과 금욕이 필요한 이유</li> <li>청소년기 성충동과 성 욕구 조절 방법</li> </ul>

○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책임 있는 성관계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대처, 성기능 부진에 대해서만 다룰 뿐, 성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협상에 대해 다루는 내용도 부재함

※ 참고7 : 고등학교 지도서 목차 中(24쪽)

성행 등	(1) 임신과 성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책무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비하는 대처 능력을 지닌다.	성관계와 임신의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관계와 임신의 책무</li> <li>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대처</li> </ul>
	(2) 성욕과 건강한 성생활	인간의 성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 며 성기능 부진에 대한 이해와 남· 녀의 성적 반응의 차이 등과 같은 건 전한 성생활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욕에 대한 이해</li> <li>건강한 성 욕구 해소법</li> </ul>
			성기능 부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기능 부진에 대한 이해</li> <li>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노력</li> </ul>
			건강한 성생활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의 성적반응의 차이</li> <li>건강한 성생활의 의미와 조건</li> </ul>

○ 이성교제 내용 중 ‘효과적인 거절 등으로 거절만 강조’하는 성적의사소통을 제시하고 있음.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서로 조율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일정한 선을 긋는 절제와 금욕을 강조함 ⇨ 청소년들의 성적의사 결정력을 향상시키고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 필요함

3-4. 이성 친구, 이성 교제 등 이성을 강조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배제 하는 등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교육 과정 전반에서 이성친구, 이성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

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성 간의 우정적 친구 관계가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성과의 관계를 모두 이성교제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성간의 교제와 관계가 특별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
- 연애와 사랑 관계를 모두 이성교제라고 단언함으로써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포괄하지 못함
- 성행동 의사결정 사례에서 행동의 주체자는 남성이고 부담스럽고 거절해야 하는 당사자는 여성으로 상정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음
- 정확한 출처에 대한 제시 없이 '개인의 심리차이를 성별에 따른 심리차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중등 68~69쪽)
- 남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과 성역할 고정적인 삽화로 인해 성차별을 강화시키고 있음[참고8]

※ 참고8 :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서 中

목 차	쪽	세 부 내 용 분 석
가족 구성원의 성	72	▶[활동2] 가족의 같은 성과 다른 성을 찾아보아요! - <u>“아빠는 무거운 일 드는 것, 이유는 엄마보다 힘이 더 세니까. 엄마는 바느질, 이유는 아빠보다 더 꼼꼼하니까.”</u> → 성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아빠라서 힘이 세고 엄마라서 꼼꼼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힘이 센 가족이 무거운 것을 들고 꼼꼼한 가족이 바느질을 하는 것. (워크북 21P)
가족에 대한 성 역할	76	▶[활동2] 우리 가족 성 역할 바로 알기 - <u>“아빠인데 어때? 목욕하고 나서 속옷만 입고 나가도 괜찮아” / “아휴~ 귀찮아 엄마가 빨래통에 넣어 주실 거야. 빨리 놀아야지”</u> → 가족 역할의 고정관념을 심어줄 것이 염려됨.(가족을 배려치 않고 노출하는 아빠, 집안 정리는 엄마의 역할)
	79	▶ <참고자료> 중 5) 그 밖에 불편했던 점 - <u>“여성 물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u> → 여성 물건이라는 표현 보다는 개인의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남성의 속옷에 관심을 보이거나, 남성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며 남성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할 가능성 배제)

친구의 성	81	▶ [활동1] 친구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른 이유 알아보기 - <u>남자 어린이 밑에는 통념적으로 남성의류를 배열해 놓았고, 여자 어린이 밑에는 여성의류를 배열해 놓았다.</u> →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의복에 한정을 두고 있다.
-------	----	---

**3-5. 발달단계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 목적의 접근을 하고 있다.**

- (유아) ‘감정을 알고 통제하며 조절한다’라는 목적은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년 78쪽)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이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청첩장 만들기’ 수업을 진행함
- (초등학교 고학년 63쪽) 임신출산과정에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한 생명 탄생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성관계의 과정’을 통한 임신은 설명하지 않음.

**3-6. 결혼에 대한 강조를 통해 부모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을 강조하고 있다.**

- 결혼과 배우자 선택 등 ‘이성애’ 중심의 결혼으로 형성되는 가족과 출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 성의 기능 중 생명창조를 강조함. 남녀의 성기에 대한 설명이 ‘임신, 생명의 시작과 탄생’으로 귀결됨(중학생 지도서 60쪽)
- 고등학생 대상 교안 전체적으로 부모되기 준비에 집중된 교육안으로 구성(고등학생 지도서)
- 임신에 대한 여성의 책임강화와 재생산에 대한 강요의 내용을 담고 있음(고등학생 지도서 74쪽 ‘인간의 성장은 자궁에서 결정된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원한다면~~ 자궁관리가 중요하다.’)
- 결혼을 미화하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청첩장 만들기 활동을 초등학생 교육활동으로 실시함

**3-7.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육이 성폭력 예방의 효과와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약화시키고 있음**

- 피해자 유발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성폭력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음 (참고9)

※ 참고9 : 초등학교 중학년 지도서 中

목 차	쪽	세 부 내 용 분 석
성욕 구의 조절	p15 7	□성충동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알기 - <u>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u> 옷차림이 성충동을 일으킨다는 전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통념과 같다.
성폭 력에 방과 대처	p22 2	□ 사례별 성폭력 대처 방법 생각하기 - 이성친구, 이성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u>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u> - 캠핑장, 친구들과끼리 여행 갔을 때, <u>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u>

○ 성폭력이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자신보다 힘과 권력이 약한 상대를 선택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들이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 성폭력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 대처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음(유아 및 초등 저학년)
-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바르게 대처~, 적절한 대처행동을 알고 실천한다.(유아)
- 성폭력성 행동에 대해 예방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참고 10)

※ 참고10 : 초등학교 중학년 지도서 中

목 차	쪽	세 부 내 용 분 석
도움 요청 하기	117	[활동1] 위험 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 <u>기사자료가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게 하여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을 필요 이상 증폭시킴</u>  [활동4] 상황에 따른 도움 요청하기 -> <u>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많으나 낯선 사람에 대한 예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접촉에 대한 다양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동이 경계를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가르침이 필요함.</u>



-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성폭력 감수성 향상, 방관자 아닌 목격자로서 개입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요구됨

3-8. 다양한 가족관계를 배제하는 내용 구성으로 가족 구성권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 우리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대안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1인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퇴보하여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표현을 삭제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편협한 사고로 보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 차별이라 할 수 있음.
- ‘이성애’ 중심의 결혼으로 형성되는 가족과 출산의 기능 강조함으로써 현 시대의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배제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는 이들의 경험을 다 삭제함
-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활동방식 제시. 조손가족, 비혼모, 한부모, 장애가정 등의 가족들에게겐 폭력적인 교안일 수 있음(참고11)

※ 참고11 : 중학교 지도서 中

목 차	쪽	세 부 내 용 분 석
임신과 출산	172	<input type="checkbox"/> 부모님께 나를 가졌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활동지 작성하기 - 태몽은?, 즐겨들으신 음악은?, 즐겨 보신 책은? 즐겨 드셨던 음식은? 아버지께서 해 주신 것은? -> 가족체제를 확립하고,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범주에서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내용은 비혼모, 한부모, 장애가정 등의 가족들에게겐 폭력적인 교안이다.

3-9 생물학적인 성지식과 개념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 월경 주기 설명과정에 불규칙한 경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중학생 지도서 52쪽)

- 발기를 성적 자극을 받을 때로만 설명이 되어있어 ‘발기=성적 흥분’이라는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남(중학생 지도서 55쪽)
- 성충동과 욕구에서 ‘강력한 성충동은 성적인 호르몬이 많다’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과잉 일반화 우려(중학생 지도서 158쪽)
- 여성의 생식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함. ‘음핵’에 대해 ‘남성의 음경과 같은 구조로 매우 민감하며, 사람마다 크기가 다양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음경에 대한 설명이 음핵을 대체할 수 없음(중학생 지도서 57쪽)

3-10. 피임과 성매개 감염에 대해서 제한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 피임을 임신 예방에만 초점을 두고 설명함. ⇨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과 책임에 대한 설명 추가되어야 함.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보완되어야 함.
- 성매개 감염을 건전한 이성교제와 문란하지 않은 성관계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함
- 월경주기법을 피임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오류가 보이고, 피임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어조로 설명하고 있음(참고12).

※ 참고12 : 고등학교 지도서 中

목 차	쪽	세 부 내 용 분 석
피임법의 선택	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연피임법</b> 등 정확하지 않은 피임방법 제공. 자연피임법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컨디션에 따라 정확하지 않음.</li> <li>- 콘돔: 정자의 질 내 <b>침입</b>이라고 표현. ‘이동’이라고 수정 필요</li> <li>- 자궁 내 장치: <b>이물질 삽입</b>이라고 표현. 이물질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메시지가 드러남.</li> <li>- 먹는 피임약: 자세한 설명이 없음. 먹는 방법 등 필요</li> <li>- 기타(<b>질외 사정법</b>)을 피임법으로 명시함.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가능함.</li> <li>- 워크북 사례2(63p)를 보면 ‘<b>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놀다가, 성폭행을 당해</b>’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난 문구를 드러냄. <b>피해자 유발론</b></li> </ul>

#### 4. 성교육 쟁점 사안과 처리내용(용역결과보고서2014.2. 354쪽~360쪽)

##### 성교육과 관련한 쟁점사안과 처리내용

순	쟁점 사항		처리 결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또는 내용	제기되는 쟁점 내용		
1	동성애	<p>1) 시민단체 &lt;동성애 문제 해결 위원회&gt;를 비롯한 국내 28개 단체에서 동성애 라는 용어의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이 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p> <p>2) 서울기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제5조에서 동성애에 대해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p>	<p>• '동성애' 라는 용어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p>	<p>• 고등학교 &lt;인간관계&gt; 영역</p>
2	성 정체성	<p>1) '성 정체성'은 '성별 정체성'과 혼동하면서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이의를 제기함</p> <p>2)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성 정체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함</p> <p>3) 성별 정체성을 판단하는 준거로는 ① 만 20세 이상인 것 ② 혼인증이 아닌 것 ③ 이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④ 생식능력이 없을 것 ⑤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⑥ 탈법적인 의도가 없을 것 ⑦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⑧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됨</p>	<p>• '성별 정체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교육내용에 성 정체성의 의미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내용을 도입함</p>	<p>• 중학교 &lt;인간발달&gt; 영역</p>

3)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활동에 참여한 단체(28개)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결혼친화실업봉사회, 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실크랭크,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 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철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세무장한국본부(MRA),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연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시찰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 동성애 : 관련 의견을 받아들인 29개 시민단체란 모두 보수적인 종교단체와 동성애 등 성소수자 혐오 및 반대 단체로 구성됨

2. 성정체성 : 문제 제기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음. 중학교<인간발달>영역에서 '성별정체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성정체성과 관련된 장애를 다루면서 트랜스젠더 내용 도입함

순	쟁점 사항		처리 결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또는 내용	제기되는 쟁점 내용		
3	성교육	<p>1) 보수단체의 성격을 지닌 시민단체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의 관점을 순결교육에 두고 순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p> <p>2) 순결교육의 부재가 오늘날의 성윤리문제를 야기했고, 순결교육의 강화만이 성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1950년대 절결교육(貞潔教育), 1960년대 순결교육, 1970년대 성지식 중심의 성교육, 1980년대 전인교육의 측면에서의 성교육, 1990년대 성문제 대처 중심의 성교육, 2000년대 범교과 중심의 성교육, 2010년대 삶과 관련한 성교육으로 전환해 왔다는 점에서 삶의 향상을 위한 성교육으로 전환하게 됨</p> <p>2) 성에 대한 윤리주의 적관점이 우리사회가 보수주의에서 사랑주의로 전환해 가고 있어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 우리나라 성교육의 변화 과정과 시대적 변화가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위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으로 전환함</p>	◦ 초·중·고 전 영역
4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p>1) 타인,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이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교육의 제한이 있음</p> <p>2) 주변 사람들과 다정다감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과의 충돌 문제</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병행하여 지도하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 있음</p>	<p>◦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는 '내 몸 만지는 사람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이성 친구의 신체 접촉', 초등학교 중학년에서는 '지인의 신체접촉',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가족과 친척의 신체 접촉' 등으로 계열화 하였고 '도움 청하기'도 삽입함.</p>	◦ 유치원 · 초등학교 <성행동> 영역, 초등학교 <대처기술> 영역

3. 성교육 : 보수단체의 성교육 관점인 순결교육 주장과 현재 성교육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교육에 대한 쟁점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으로 전환'이라는 애매한 정리를 했고 이후 실제로는 금욕주의 성교육 내용으로 구성함

순	쟁점 사항		처리 결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또는 내용	제기되는 쟁점 내용		
5	데이트 강간	<p>1) 보수단체에서는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을 자극시켜 청소년 성범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용어 사용을 반대함</p> <p>2) 심지어는 범죄율이 낮은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트 강간'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까지 주장함</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현재 '데이트 강간'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임.</p> <p>2) 네덜란드는 '데이트 강간'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임.</p> <p>3) 네덜란드는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시하는 일관된 교육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음. 어려서부터 성에 대해 'No means NO'라는 교육을 통해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성에 대해 상처를 주는 성폭력에 예방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강간률이 낮게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범죄율은 낮으나, 증가추세가 두렷한 '데이트 강간'을 성교육 내용으로 도입하여 '데이트 강간'의 개념, 이에 대한 대비법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도입함</li> <li>• 다만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삽입함</li> </ul>	• 고등교건형 <성강>역
6	성폭력 대처 (싫어요! 용어 사용 금지를 주장)	<p>1) 성교육 전문가 중 일부 학자들은 '성폭력 대처'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함</p> <p>2)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겁이 나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 실질적인 대처능력이 없음</p> <p>3) 심지어는 이러한 '성폭력 대처'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족한 대처법으로 생명을 잃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함</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성폭력을 무담비 상태로 맞게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 아님</p> <p>2) 오히려 미비한 대처능력에 대한 실인행위보다는 성관계를 갖은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대비와 대처능력의 육성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에 대한 범죄의 증가, 어린학생까지 성폭력 대상자가 되는 범위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지도가 되도록 계열화 하면서 누적화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편제함</li> <li>•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대비하는 행동과 방어적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함</li> </ul>	• 유치원 · 초 · 중 · 고 <성건형>역

5. 데이트 강간 : 연구진이 개념 없이 '데이트강간 예방교육이 청소년들을 자극해 성범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보수단체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쟁점사안으로 받아들임

6. 성폭력 대처 : 성폭력 예방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함.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자신보다 힘과 권력이 약한 상대를 선택하므로 피해자의 대처방안보다는 가해자되지 않기 위한 감수성 훈련, 방관자 되지 않고 목격자로서 개입하기 등의 교육 방안 필요

순	쟁점 사항		처리 결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또는 내용	제기되는 쟁점 내용		
7	5대 영역 설정	<p>1) 일부 학자들은 성교육의 영역을 대처기술이나 성행동, 성 건강까지 확대하여 6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p> <p>2) 성행동, 성 건강, 대처기술 등은 인간의 신체발달과 심리발달이라는 영역으로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영역의 수를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그동안 3대 영역<sup>4)</sup>, 또는 4대 영역<sup>5)</sup>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은 성교육을 단순한 성 지식이나 성태도로 보지 않고 인간의 삶으로서의 성으로 보면서 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관계적 성, 환경적 성, 성 기능적 성의 측면을 제기하고 있다.</p> <p>2) 또한 미국의 성교육(SIECUS)<sup>6)</su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교육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여 성행동과 성건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p> <p>3) 최근의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동안 3대, 4대 영역으로 구성되던 성교육 영역을 6대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한선희 외).</p>	<p>◦ 성 건강, 성행동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성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와 문화 영역으로 독립시켜 6대 영역으로 설정함</p> <p>[6대 영역]</p> <p>① 인간발달 ② 인간관계 ③ 대처기술 ④ 성행동 ⑤ 성 건강 ⑥ 사회와 문화</p>	◦ 유치원·초·중·고 전 영역
8	음란물	<p>1) 성교육에서 '음란물' 이라고 하면 왜 야한 동영상만 대상으로 하는가?</p> <p>2) 이로 인하여 동영상 관련 산업만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산업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야한 동영상만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함</p> <p>2)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서 소재의 다양화가 필요함</p>	<p>◦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진 속 음란물', 중학년은 '영상 속 음란물', 고학년은 '인터넷 속 음란물'로 체계화 함</p>	◦ 초·중·고 교과 <사회와 문화> 영역

4) 신체발달과 심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해, 성문화와 성윤리 등을 말함.

5) 신체적측면, 심리적측면, 인간관계측면, 사회적측면 등을 말함.

6) SIECUS(성교육관련 정보와 미국 교육협의회, 2002).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8. 음란물 : 야한 동영상만을 이야기한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대상별 발달수준에 맞게 사진, 영상, 인터넷'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접하는 성표현물 종류에 있어서는 대상별 고려가 필요하지 않음. 또한 야동'이란 표현은 성교육시 '19금 성적표현물'에 대한 아동청소년들 문화 반응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차원임

순	쟁점 사항		처리 결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또는 내용	제거되는 쟁점 내용		
9	노인의 성	<p>1) 성교육은 삶의 일환으로서의 성에 중점을 둔다면 청소년기의 성 단을 교육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른 성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야 함</p> <p>2) 따라서 아동기의 성은 물론이고, 노년기의 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p>	<p>· 노년기에 대한 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생애 주기에 따른 성의 일환으로 &lt;폐경 및 노인의 성&gt;을 교육내용에 삽입함</p>	<p>· 고등학교 &lt;인간발달&gt; 영역</p>
10	행복한 가정생활	<p>1) 학교급별 성교육의 목표에서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음</p> <p>2) 이에 대해 일부 학자와 교사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낱말은 이성애자의 결혼, 이혼하지 않는 가정생활만을 강조하고 있고, 동성애자나 독신자, 이혼한 가정의 생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단어로 편협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함</p> <p>3)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행복한 삶'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함</p> <p>&lt;쟁점에 대한 다른 입장&gt;</p> <p>1) 성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행복한 가정생활'이지 '행복한 삶'이 아님</p> <p>2) '행복한 삶'에는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직업적 생활, 사회생활 등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p> <p>3) 성교육에서 직업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직업생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단어의 수정은 불가능함</p>	<p>·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p>	<p>·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목표</p>

9. 노인의 성 : 처리 결과로 <폐경과 노인의 성>을 교육 내용에 삽입함. 완경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폐경'의 단어를 사용함.

10. 행복한 가정생활 :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계속되는 문제 제기로 인해 '행복한 삶'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교육 안에서는 이성애자와 결혼한 가정, 이혼하지 않는 가정생활만 행복한 삶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 관계는 소외시키고 있음





## 대구지역성교육협회의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 관련 대응X경과 보고

대구지역성교육협회 공동대표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교육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나타난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2015년 2월 교육부는 성교육의 교과과정 지도안과 PPT,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학생건강센터 성교육 자료실에 집적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했다. 성교육표준안을 전달하기 위한 연수를 지역 교육청마다 실시하였고, 이 전달연수에서 전체 지도안에 대한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의 14가지 지침’을 발표하였다.

현장의 성교육강사들은 교육부가 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표준교안을 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14가지 지침에 나타난 교육부의 인식은 지금까지 성교육을 해왔던 성교육 강사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14가지 지침의 내용을 보고 대구지역성교육협회는 대구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침이 서류상의 지침인지 실제로 작동하는 지침인지를 물었다. 대구교육청담당자는 ‘조선시대 성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라, 이 지침대로 성교육은 평가될 것이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어떤 전문가들이 이 표준안과 지침을 작성했는지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성적소수자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운동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2015년 5월1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이 표준안의 작성 배경과 전문가 집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5월 시작한 성교육정책 연구는 2013년 8월 가톨릭대학교 직업보건 대학원이 맡았고, 소수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내용은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4년 3월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동성애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교육하고 다양한 성적지향을 언급함으로써 젊은이를 유혹하고 잘못된 성문화로 이끌 수 있는 성교육표준안을 비난했고 이러한 내용은 14가지 지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sup>1)</sup>

교육부가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성교육은 교사의 성적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육이 절제가 아닌 ‘금욕’을 바탕으로 하고, 성 정보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성교육 현장과 동떨

1)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14가지 지침 중 ‘ 7.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8. 성적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인권측면과 성적 가치 측면을 분리 10. 편중된 가치(진보와 보수의 관점)문제 : 중립성’이다.

어진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넘쳐나는 성관련 정보에 둘러싸여 있고, 성교육 현장은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가치론적인 성교육이 싸우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성교육 강사는 개방적인 자세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성적욕구와 행동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성교육의 목적은 성평등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금기의 교육’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인권과 성평등적 가치를 내면화한 교사와 강사가 소통하는 자세로 교육해야 한다.

성교육 표준안 지침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인권과 성적가치의 측면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자위행위는 질문이 없으면 언급할 수 없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이해로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의 내용은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에서 이 지침이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성행동인 자위행위를 공식적 주제로 다루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지침의 보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답을 찾아가고, 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은폐되거나 이중적인 성인식이 아닌 자유롭고 행복하며 평등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한부모 가족, 비혼모 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속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14가지 지침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구성교육협의회’<sup>2)</sup>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의 14가지 지침 철회, 지도안과 PPT, 동영상 재검토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를 제안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단체협의회는 4월13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4월 16일에, 교육부 학교「성교육 표준안」의 지침 철회 및 성평등교육안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대구에서는 4월21일 기자회견이 있었다. 또한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는 초, 중, 고 지도안과 워크북, PPT를 분석하여 7월 20일과 8월19일 분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차 워크숍은 중학교 교안내용 30차시, 고등학교 교안30차시에 대한 분석과 특별히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내용 교안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교안은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14가지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었으나 차시별로 서술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되는 내용도 다수 발견되었다. 남녀 이분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2)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는 소우주성문화인권교육센터, 행복사회복지회,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로하스교육연구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에이즈예방협회, 뉴라이트교육연구소, 한국피해자지원협회대구경북지부로 구성되어있으며 2008년 00초등학교 학교폭력과 성폭력사건 이후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외부 성교육전문기관이 년 1회 이상 학교성교육을 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성교육전문교육단체들의 협의체이다.

강화와 여성을 모성으로 한정짓는 내용, 금욕에 초점을 맞춘 성에 대한 설명이 거의 모든 지도안에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성교제’로 지칭된 차시의 내용은 가치 조선시대를 떠올릴 만했다. 성폭력은 전 지도안에 동일하게 학습목표나 내용에 있어 ‘이성 간에 성폭력’으로 표기되어 성폭력을 이성 간에만 일어나는 일로 협소하게 인식함을 보여주었고, 중학교 성폭력 예방 PPT는 그 대처 방법이 개그콘서트의 대본이 아닐까 하는 내용으로 실소를 자아내는 내용이었다. 성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관련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 오류이거나 인권의식이 없이 서술될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8월20일에 있었던 2차 워크숍에서는 대상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과 워크북의 사용, 남녀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한 내용들이 분석되었으며 역시 성폭력 관련 내용은 ‘이성간의 성적 강요행위’로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교안분석의 해본 결과 이 교안은 수정으로 현장에서 쓰일 수 없는 내용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전국적인 연대단위는 교육부가 성교육표준안의 14가지 지침을 철회하고 지침에 따른 지도안과 PPT, 동영상 등 재검토하기 위한 ‘성평등인권성교육교안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성교육표준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평등인권성교육교안 제정위원회는 교육부관계자, 성교육전문가, 여성, 인권단체, 전문가가 함께 현 시대에 맞고, 미래지향적이며 성평등적인 교육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미래세대들은 ‘성’에 대해 어떤 피해나 폭력의 이름,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범죄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건강하며 행복한 ‘성’을 알고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현장의 성교육 강사들은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성교육 강사들의 고민과 노력들은 다음 세대들이 성평등적인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14가지 지침의 철회와 지도안 변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2월과 3월에 이 성교육표준안의 전달연수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교육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성교육표준안으로 성교육이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보수적이며 왜곡된 성의식을 전달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는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구지역에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안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 경과보고

- 2015년 3월 03일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문제 대응 회의  
- 학교성교육표준안 14가지 지침의 문제점 논의  
(대구교육청 2.27보건교사 연수)
- 2015년 3월 11일 대구교육청 지역사회 성교육전문기관 관련자 회의  
- 대구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 14가지 지침의 준수 강조  
- 담당자 '조선시대 성교육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라'고 발언
- 2015년 3월 24일 대구시성교육협의회 대표자회의  
- 학교성교육표준화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 방안기자회견 날짜 확정  
- 전국연대하기로 확정
- 2015년 4월 13일 전국적인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지침 철회 및 성평등교육안 제정을 위한 연대 제안
- 2015년 4월 20일 대구시성교육협의회: 기자회견관련 논의
- 2015년 4월 21일 대구지역성교육 협의회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침 철회 및 성평등교육안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2015년 5월 08일 철회를 위한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전반적 분석에 대한 논의
- 2015년 7월 20일 「교과부 학교성교육 표준 교안」 분석 1차 워크숍  
- 중학교 교안 30차시 분석 내용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 고등학교 교안 30차시 분석 내용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내용 교안분석 내용
- 2015년 8월17일 전국적 상황 공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회의
- 2015년 8월 19일 「교과부 학교성교육 표준 교안」 분석 2차 워크숍  
- 초등학교저학년 교안 25차시 분석 내용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 초등학교중학년 교안 25차시 분석 내용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 초등학교고학년 교안 25차시 분석 내용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의 의견서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의 아동청소년에 시행될 성교육의 표준안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과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성/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성/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단체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사용을 조속히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목 차

1.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
  - 1) 생식·남성성기 중심의 서술
  - 2)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 3)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
  
2.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
  - 1) 다양한 가족형태의 배제
  - 2) 성적 다양성의 배제
  
3.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
  - 1)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 2)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 4)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거절

1. 성평등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생식·남성성기 중심의 서술**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해, 생식으로 귀결되는 성만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성간 성관계도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 이성간 성관계 또는 여성의 성적 반응에 대한 묘사도 성차별적입니다.

○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생식을 위한 의미로만 설명하고, 그 관리의 방법 역시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법: 임신 전이나 결혼 전에는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전문가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고등 19차시)

(생식기의 관리) 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저 14차시)

○ 성기를 생식기능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함.

‘음순: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생식 기관이다. 이곳을 통해 소변이 나온다’(유치원 7차시)

여성의 성기를 ‘난소(여자의 아기씨를 만드는 곳), 난자(여자의 아기씨), 난관, 자궁(아기가 자라는 공간), 질(아기가 나오는 길)’로 내부기관만을 설명하고 성기를 생식기능에 한정해서 설명(초등중 15차시)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 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들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의 차이를 보았을 때에도 남녀의 생식기는 단지 쾌락과 욕구의 배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만들고 생산하는 소중한 것’(중등 2차시)

‘성의 소중함과 의미는 무엇인가: 출산의 감격이 담긴 동영상 시청 후 성의 가치에 대하여 논의해보기’ 학습활동(고등 11차시 성에 대한 책무성)

‘성과 책임의 관계: 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됨. 성적 활동을 할 때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고등 11차시 성에 대한 책무성)

○ 여성의 성적 반응을 남성의 성적 반응에 비교하여 서술하거나 성기결합 성관계를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여성에 있어서 성 반응이 시작되면 습기가 없고 딱 단혀 있던 질은 충분히 윤활성 물질이 분비가 되며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린 수용기로 변하며 국소적인 혈관 충혈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발기에 해당된다. 여성의 성 반응의 두 번째 단계는 남성의 오르가슴기의 사정에 해당되는 오르가슴 단계이다.’(고등 18차시)

‘성 반응의 주기: 질도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확장되고’(고등 18차시)

## 2)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적 특징은 물론 성격, 태도, 취향, 역할 등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틀에 박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제시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또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차별적 성별규범과 함께 전달됩니다.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의 차이로 환원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차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함.**

‘남자들은 활동적이지만 모든 남자들이 활동적인 건 아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자도 있다.’ 여성이나 남성의 성격이나 태도, 취향 등을 전제하고 다른 성별은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전달(초등중 5차시)

‘체계화형 뇌와 공감형 뇌’(초등중 8차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뇌구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기 학습활동’(초등고 11차시)

‘남성의 뇌, 여성의 뇌’(중등 4차시)

‘진화에 의한 역할 차이, 감정 처리 방식의 차이, 서로 다른 언어표현’(중등 14차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참고자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줄거리: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남자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들은 잠재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뛰어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낸다. 그러나 만약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남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가 썩 훌륭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남자는 공감과 동정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정 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지나친 보살핌은 숨 막히게 한다. 공감과 동정보다는 남자를 신뢰한다는 표현과 용기를 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의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남녀 모두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번식의 공동 목적을 지니고 성 역할을 조화시키며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고등 2차시)

‘Bem(1975)의 성격 특성 척도: (여성성 평균-남성성 평균) x 2.322를 계산한 값이 2.025 이상인 경우 여성적이다.’(고등 2차시)

○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함.**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유치원 7차시)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 학습활동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초등저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초등고 8차시)

○ 여성의 말하기 방식을 감정적이며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폄하함.

‘대화 내용을 듣고 생각해 보기(남자가 여자와 다툼 사과할 때, ‘미안해’라고 말해도 다시 ‘미안해’ 라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블랙홀’같은 상황을 풍자한 것임을 설명)’(고등 12차시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이성간 의사소통의 차이는 무엇인가?’(고등 12차시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 3)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

십대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환원하면서 여성의 제각각 다른 경험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태교와 모성을 강조하며 임신중절에 대해 여성만을 비난합니다. 또 피임방법은 부정확합니다. 여성의 임신출산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성 자신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사소통의 훈련과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태교 방법 등만 자료로 제시하는 교육은 성교육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여성의 제각각 다른 경험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태교와 모성을 강조하고, 십대여성의 성을 아기를 출산할 몸/성으로 환원함.

‘모체의 건강 상태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 보기: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생활 등 임신 중 시행하는 태교를 사실 임신 전부터 시행해야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어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중등 16차시)

‘임신 준비하기: 1. 인간의 건강은 선천적으로 자궁에서 결정된다. 성격, 외모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생겨나는 곳이다. 2.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태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만들기 전 임신 전부터 자궁 관리가 중요하다. 3. 태교는 아이를 잉태한 이후가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 최고의 환경과 조건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음식 태교, 태담 태교, 음악 태교, 여행 태교, 명상 태교, 산책 태교, 웃음 태교, 미술 태교, 독서 태교, 노래 태교, 일기 태교, 기 태교, 바느질 태교 등을 소개(고등 5차시)

‘부모님의 태교가 나에게 미친 영향 생각해 보기’ ‘미래의 나의 아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태교 방법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모둠별 태교 나무를 완성해 보자.’(중등 17차시 임신과 출산)

○ 원하지 않는 임신은 여러 상황에서 여러 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임신중절을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다루며, 미혼모를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하지만 임신중절의 원인은 '일찍 시작한 사랑'으로 부정확하게 제시하며, 미혼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너무 일찍 시작한 사랑 생식기 건강에 '빨간불' : 성관계를 경험한 여학생 중 14%는 임신이 됐고, 이중 85%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중등 16차시 생식기 건강과 태아)

'자발적 인공 임신 중절: 사회, 경제적 이유 혹은 본인 요청 등을 쫓아 불법적으로 시행'(고등 22차시)

'소셜 키싱 마이 라이프의 몇 장면을 읽고 청소년기 임신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낙태라는 불법적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가출을 하거나 집을 떠나 보호 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입양시키는 경우 평생 죄책감에 힘들 수 있다. 영아 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학생이라는 평범한 행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죄의식과 부끄러움에 괴로울 수 있다.'(중등 25차시 미혼모와 한 부모 지원1)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 낙태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이 남거나 정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 -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경우: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됨 - 낳아서 키우는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문제, 학업 중단 등의 문제 등이 있음', '미혼모 문제: -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일컫음 - 개인의 부도덕이나 무절제 등 개인의 결함 차원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함 - 빈곤, 학업, 건강, 자녀 양육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보호하고 지지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함'(고등 15차시)

○ 인공임신중절 수술 통계의 정확한 비교 없이 미혼여성의 감소율이 낮다는 서술은 부정확함.

'인공 임신 중절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률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한다.'(고등 22차시)

○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은 피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질외사정법이 심지어 응급피임약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부정확하게 서술함.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 육체적 애정 표현에 대한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정한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한다. 데이트 계획을 미리 세우고 성적 자극은 피한다.'(고등 15차시)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 등을 피임법으로 소개(중등 19차시)

응급피임약의 성공률은 75%, 질외사정법의 성공률은 80%(고등 21차시)

2.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1) 다양한 가족형태의 배제

다양한 가족형태의 아동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이 당연하고도 정상적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과 생활하고 있는 아동, 동거나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는 점은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또한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인간의 생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당연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정과 규범’으로 전달하는데 이는 성소수자와 비혼에 대해서도 차별적입니다.

○ 가족을 혈연집단, 동거·동재 집단, 이성간 혼인과 임신출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하고 가족 구성과 혼인·동거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함.

가족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혈연집단, 동거·동재 집단으로 설명(초등저 5차시)

‘함께 있고 싶어서 남녀가 동거하면 이것도 결혼일까?: 동거에는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중등 9차시)

‘아기의 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일인 만큼’(고등 15차시)

○ 한부모가정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과 생활하고 있는 아동, 동거나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며, 기러기가 족 또는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불행하게/문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함.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부모와 나와 관계’(초등저 9차시 결혼의 의미와 나)

‘엄마, 아빠의 몸과 내 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습활동에서 신체변화의 비교대상을 부모로 한정(초등중 4차시 변화하는 몸)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없을 때’ 각각 아빠가, 엄마가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누는 학습활동(유치원 9차시)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집안일을 생각해보게 하는 학습활동(초등저 5차시 ‘가족구성원의 성’)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 알아보기/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 역할의 중요성 알아보기’ 학습활동 중 ‘틀린 말을 찾아 올바른 말로 고쳐보세요’에서 ‘엄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시며 아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신다.’를 ‘엄마는 섬세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시며 아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신다.’로 고침(초등중 6차시)

‘기러기 가족의 그림을 보고 그림 속 아빠, 엄마, 아들의 생각이나 기분 나누기’ 학습활동(초등중 7차시 내가 꿈꾸는 결혼과 부모의 역할)

아기수첩, 아기였을 때 사진, 가족사진 등 가정조사를 요구하는 학습활동(유치원 5차시, 11차시)

○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이 인간의 생애에서 반

드시 필요한 것,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당연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정과 규범’으로 여겨지게 함.

‘청첩장 만들기’(초등중 7차시 ‘내가 꿈꾸는 결혼과 부모의 역할’)

‘준비된 부모되기 서약서 작성하기-사랑스러운 나 ( )은/는 내 나이 ( )살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 )고 ( )일에 ( )째 열중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기를 기다린 지 ( )년 되던 해에, 태어날 아기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 ) 부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중등 25차시)

‘미래의 나의 결혼을 계획해 보기: 몇 살쯤에 결혼을 할까? 어떤 결혼식을 할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몇 살쯤에 아기를 낳을까? 아기는 몇 명이나 낳을까?’, ‘의견 나누기-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고등 8차시)

‘미래의 자녀에게 쓰는 편지 쓰기’(중등 9차시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생각하기(초등고 8차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

성인이 되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초등저 9차시)

‘생애 주기별 성적 변화의 특성’을 ‘이성 교제-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설명(고등 3~4차시)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등중 7차시)

‘신생아 관리’에 대해 한 단원을 할애(중등 18차시 ‘신생아 관리’, 고등 13차시 ‘신생아 돌보기’)

## 2) 성적 다양성의 배제

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하고 성적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면서 다른 생물학적 성,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모두 배제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자아를 탐색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교육적이지도 않으며, 성적 다양성을 삭제한 성교육은 성교육이 아닙니다.

○ 성을 여성과 남성 두 성별의 관계로 다루면서 다른 성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윤리적·정신적 문제로 규정하는 등 철저히 배제함.

‘성(性)은 생물학적 측면의 성(sex)과 사회적인 측면의 성(gender), 두 가지 면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유치원 17차시)

‘성은 남녀의 관계’(고등 1차시)

‘성은 남성(아빠)와 여성(엄마)의 혼인과 관련한 일’(유치원 1~3차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초등중 1차시)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중등 1차시)

‘성-영혼적 영역-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예-낙태, 성적소수자, 미혼모 등)’(중등 1차시)

‘성-정신적 영역-여성, 남성에 대한 자긍심’(중등 1차시)

○ **성정체성이 자기 자신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잘못된 양육이나 학대에 의한 질병/장애라고 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임.**

‘성 정체성의 의미 알아보기’ - ‘나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의 자기 이해로 이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성에 맞는 성격, 관심, 기호, 행동 등을 채택하는 것’(중등 6차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우세하다. 즉 양육 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린이의 기질, 부모의 태도, 양육 방법,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장 과정 중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가 주가 되는 남근기 상태에 고착된 현상으로 본다.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추정하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중등 6차시)

○ **관계의 성격에 맞게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다르게 교육함.**

○ **모든 학생이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서 틀에 박힌 이성애각본을 주입하며 학생들 간의 차이를 무시함.**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동성친구와 이성친구로 구분해 이성친구와 잘 지내는 법 중심으로 다룸(초등저 7~8차, 10~13차시)

‘이성교제의 좋은 점’(중등 8차시)

‘[참고자료]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사랑: 1) 남자는 신뢰하고 인정받는 사랑을 원한다. 여성에게서 받는 신뢰와 인정이야말로 남성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꼭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힘을 얻게 된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신뢰 받을 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고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맘껏 보여줄 수 있다. 2)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통한 사랑을 원한다. 여자는 관심을 기울여 주고 감정을 이해해 주면 존중해 주는 사랑을 원한다. 여자는 남성에게서 자신이 관심을 받고 또한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삶의 의욕이 커진다. 여성들이 남성에게서 원하는 애정의 본질은 남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으며 아껴 주고 보호해 주고 자신과 삶을 공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상태를 계속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는 남성이 큰맘 먹고 한번 크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소한 일에 관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남자와 여자는 섹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최근에는 남성도 섹스에 사랑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등 9차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전혀 다루지 않음.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다루지 않음(초등고 21차시 '성 차이와 성차별의 이해').

3.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금욕주의 성교육으로 성적 의사소통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적 경험을 하고 있고 성과 관련한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 관계 자체를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적 욕구를 억누르고 성행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뿐이며 성폭력은 개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성행동이 그 자체로 불건전한 것, 개인적 불행이자 사회문제라고 전달함.

'성적 행동은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중등 10차시)

'건전한 성 욕구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화제를 갑자기 바꿔 봄. 이성과 단 둘이 만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음.'(고등 16차시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

'청소년기 금욕: 무분별한 성 욕구 충족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 임신, 미혼부, 미혼모, 성병, 학업 중단, 성폭력 등. 성 욕구를 성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 충동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알기' '자위를 많이 하면 음경 찰과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음낭이 이완되거나 성기 변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다.'(중등 15차시 '성 욕구의 조절')

○ 정확한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보다 건전하지 않은 성행동을 에이즈 또는 성매개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는 등 성행동의 (과장된)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에이즈는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부정확하며 성매개감염병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감염된다는 오해를 일으켜 부적절함.

에이즈 예방법 '절제: 성 행동을 절제하는 것. 신뢰: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성 행동.'(중등 22차시)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법: 건전한 성 의식 및 성생활 습관을 갖는다.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이나 마약 등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성 접촉 등 불건전한 성 접촉을 피한다.’(중등 21차시)

‘성 인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건전한 이성 교제를 추구’한다(고등 5차시)

## 2)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해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이 능동적인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남성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행동을 정당화하기 쉬운 서술, 여성에게 ‘정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서술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하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함.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데’(초등저 23차시)

‘남녀의 성 심리의 차이-남성은 접촉욕과 함께 성교육을 느끼는데 비해 여성은 접촉욕이 늦게 나타나고, 성교육은 더 늦은 연령에서 나타난다. 셋째, 성 욕구 진행 과정 면에서 여성의 성욕은 자극을 통해서 성호르몬이 뇌로 전달되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접근욕과 접촉 욕구가 생긴 후에 성교육이 생기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자극을 통해서 성호르몬이 뇌로 전달된 후 성교육이 빠르게 진행된다. 넷째, 성적인 성숙 면에서 남성들은 유정과 몽정을 통해 쾌감을 자연 발생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남녀의 성적 욕구에는 차이가 있을까?-일반적으로 남성의 성 욕구는 17~18세쯤 가장 강하게 나타나서 20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중등 4차시)(고등 16차시)

‘남녀 성 심리 특성의 차이-남성은 신체 접촉 중심적, 성행위 주입, 충동적, 공격적, 적극적, 사랑보다는 상황에 의해 성관계 원함, 성관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고등 13차시)

‘남녀의 성 심리의 요인 알아보기-1)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 남자는 사냥과 전쟁을, 여자는 자녀를 돌보고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는 것으로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양육성을 설명함. 2) 좌뇌는 언어 능력에 우뇌는 공간 지각력에 관여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우반구 두뇌 발달을 촉진하여 차이가 있다고 추정. 두뇌 발달 차이와 남녀 공격성의 차이 연관성이 있다고 함’(고등 1차시)

‘성적 존재로서의 나 발견하기’에서 남성은 ‘야한 상상 또는 생각’ 여성은 ‘로맨스 소설, 성적 환상’으로 서술하고 ‘성 인식에 대한 남녀의 차이 발견하기’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욕이 다르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점, ‘성 인식에 대한 남녀 차이 구체적 내용 설명하기’에서 ‘남녀의 정서 반응 및 표현의 차이: 남자: 친밀감이나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스킨십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낌. 여자: 대화나 분위기 등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밀감이 생긴 후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생긴.’(중등 14차시)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여성은 성관계와 사랑을 연관시킴. 최근 남성도 성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감과 사랑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여성의 성 반응: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한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고등 18차시)

###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성폭력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서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폭력은 남성-여성간 강간 중심으로 전달하기보다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만큼 성폭력이 낯선 사이에만 일어난다고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사강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성폭력의 개념을 잘못 서술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성폭행을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라고 설명(초등중 17차시)

'성폭력 관련 법률상의 용어 설명: 유사 성교 행위: 신체나 성기에 성기,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해당.'(중등 23차시)

○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에 의한 피해가 많은 아동성폭력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주로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어 부모 등 친족은 성폭력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친족성폭력을 가족 간 '예절'의 문제로 다룸(유치원 10차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및 대처방법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위험 상황만을 제시(유치원 16차시)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또래성폭력, 초등학교 중학년 과정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또래성폭력과 친족성폭력을 다룸. 학년에 따라 아동성폭력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 다루는 근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짐.

'성적 강요 행동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행동하기 전에 나의 가족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생각한다'(초등중 17차시)

'성폭력의 의미알기: 각 상황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생각해 보기: 등교 시 부모님과 뽀뽀로 인사하는 모습 X'(중등 23차시)

○ 데이트성폭력의 개념을 이성 간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여성이 동등하게 데이트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데이트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참고자료] 데이트 성폭력의 개념: 2) 넓은 좁은 의미로는 이성 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 간의 데이트란 이성과 계획된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함. 3)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정의하기도 함.'(고등 24차시)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4)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 생각과 가치관,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인 데이트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남성은 돈, 여성은 몸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등 24차시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성폭력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잘못된 내용이며, 성폭력은 계절과 관련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달해야 함.

‘이성교제의 어려운 점-이성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중등 8차시)

‘어느 계절에 성폭력이 많이 일어날까요?’(초등고 18차시)

○ 성인여성 대다수가 겪고 있는 직장내성희롱 사례 중에서도 자살 사례만을 선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성희롱이 발생할 때 동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고민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임.

‘사례를 통해 성에 대한 책임의 의미 생각해 보기: 서울시 女공무원 성희롱 사건 후 자살 인권위 조사’(고등 11차시)

○ 성폭력피해자의 치유/회복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전달될 수 있어서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임.

‘(성폭력피해자의)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② 감정 조절하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충동 조절하기’ 등(중등 13차시)

#### 4) 잘못된 인용

자료의 출처 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원 자료의 맥락에 어긋나게 인용하는 등 잘못 인용된 부분은 삭제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 자료의 출처 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원 자료의 맥락에 어긋나게 인용하는 등 잘못된 인용임.

‘우리나라 성폭력의 원인: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실효성 있는 성교육 미흡. 등(출처: 보통의 경험)’(중등 23차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순결 상실감, 우울감, 무력감. 등(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중등 23차시)



## 5)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거절

성폭력 가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지 않으면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거절하는 것 중심으로 연습하게 하는 교육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합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성폭력은 피해자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응과 대처를 강조하면서도 피해자가 성폭력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심과 패배감을 동시에 심어주는 혼란스럽고 모순된 서술은 성폭력 예방을 훨씬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 대한 여성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남성의 성적 충동을 정당화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고 성폭력은 피해자/여성이 잘 거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음.

상황에 맞게 거절하기 : 성폭력 상황을 제시, 거절기술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 설명(초등중 12차시)

'남녀 성 심리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중등 4차시)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의 중요성: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임신, 성병 등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중등 12차시)

'수용하기 어려운 이성의 성적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거절 방법은 무엇인가'(고등 13차시)

○ 여성이 조심하면 된다는 내용을 데이트성폭력 예방 행동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며, 주의사항도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킴.

'사례별 성폭력 대처 방법 생각하기: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과끼리 여행 갔을 때-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중등 24차시)

데이트성폭력 '- 평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태도를 지닌다. 남성 우월적인 태도를 지녔거나 상대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성,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성,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의 행동이 형편없는 남성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상대를 잘 모를 경우에는 남성의 집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함께 숙박업소에 가지 않는다.'(고등 25차시 데이트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평소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등 25차시 데이트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데이트할 때 주의해야 할 상대방의 말: 나만 믿어! -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한 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 줄게 - 괜찮아, 너도 곧 좋아하게(즐거게)될 거야. -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보여줘. - 다른 남자들은 섹스에만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너를 인격체로 좋아하는 거야. - 네가 너무 필요해, 네가 너무 탐나. -

술도 껌껌 비디오방에서 쉬었다가 가자. 아무 짓도 안할게. -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거야. -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남녀가 평등해 지려면 구시대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해.’(고등 25차시)

○ 부적절하며 부정확한 내용으로 더욱 공포심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거절’을 강조하는 것과 모순되어 혼란을 일으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피해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친 사례를 동기유발 자료로 사용(초등중 14차시)

‘[표] 최근 주요 성폭력 사건 사례 정리’(중등 24차시)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의 실태: 피해자가 저항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거짓) [이유]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 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 이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음.’(중등 23차시)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번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아동/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목 차

1.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
2.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3.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전달연수 내용의 문제점
4.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의 문제점
5. 국제인권기준 위반
6. 결론

## 1.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

○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도입 배경을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통해 바람직한 성가치관과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가치관과 성규범, 성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인 통제능력을 길러 다양한 성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8p)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성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소위 성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에게 시민과는 다른 대우를 해왔던 관행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청소년, 학생의 성적 권리는 금기시되어왔고 “미숙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의 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정당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기준에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권한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가립니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 금지하는 것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취약한 조건에 누군가 처해져있다면 그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식이 취약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면 그만큼 책임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방종과 어떻게 다른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제한을 받는 영역중의 하나입니다.

○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건강권, 정보권, 교육권을 신장시키고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대로 성적인권을 표현하고 행하거나,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성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그 과정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2.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성교육표준안 마련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sup>3)</sup>

###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경과

3) 정보공개청구 청구자: 나영정, 처리과: 학생건강정책과, 문서번호: 학생건강정책과-2610

1. ('13.5.30)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주관교육청 지정 요청 : [자료 1-1, 1-2]
2. ('13.6.10) 주관 교육청 관계자 세부추진방안 협의 : [자료 2]
3. ('13.8.23) 정책연구자 공모 및 제안서 심사·선정
  - 주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해당 없음
4. ('13.11.8) 정책연구 결과 중간 보고회 : [자료 4]
5. ('14.1.16) 정책연구 결과 공청회 : [자료5-1, 5-2]
6. ('14.3.10) 정책연구 결과 최종보고회 : 공청회 결과 반영 후 최종 표준안 결과 보고서 : [자료 6]
7. ('14.3월) 정책연구 결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 시·도교육청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3.10~21) : [자료7-1, 7-3, 7-4]
  - 교육과정 전문가 의견수렴(3.20) : [자료7-2,7-5]
  - 관련 단체 의견수렴(4.15) - 연구진에서 별도 의견수렴
8. ('14.8.29) 시·도교육청 담당자 검토회의(1차) : [자료8-1, 8-2, 8-3]
9. ('14.12.12) 시·도교육청 담당자 검토회의(2차) : [자료 9-1, 9-2]
10. ('15.1.26) 성교육 표준안 개발 결과 보급 : [자료10, 11 - 1, 2, 3]
11. ('15.2.10)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달 연수 : [자료10, 11 - 1, 2, 3]
12. ('15.2.23~3.13) 교육청별 단위학교 담당자 연수 : [자료12]

○ 교육부가 2013년 5월 특별교부금(국가지책사업)으로 '2013년 학생건강안전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주요한 사업으로 학생 '성교육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로 "U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제에 성교육 의무과정 보장, 성 및 재생산 관련 건강권에 관한 연령·수준별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실제 진행된 내용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동떨어져 있고, 그러한 점은 정책연구 의견 수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2년여에 걸쳐서 정책연구와 표준안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 8월 ~ 2014년 3월 사이에 진행된 정책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에 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매우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진행된 표준안 개발과정에서 포괄성이나 다양성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은 2015년 2~3월에 진행된 교육청별 단위학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알려졌으며, 전달연수용으로 제작된 PPT의 내용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교육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처리내용

순	쟁점 사항		처리 결과	비고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또는 내용	제기되는 쟁점 내용		
1	동성애	1) 시민단체 <동성애 문제 대책 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28개 단체 <sup>3)</sup> 에서 동성애 라는 용어의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이 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2)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제5조에서 동성애에 대해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동성애’ 라는 용어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 고등학교 <인간관계> 영역
2	성 정체성	1)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과 혼동하면서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이의를 제기함 2)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성 정체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함 3) 성별 정체성을 판단하는 준거로는 ① 만 20세 이상일 것 ② 혼인중이 아닐 것 ③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④ 생식능력이 없을 것 ⑤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의 판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⑥ 탈법적인 의도가 없을 것 ⑦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⑧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됨	◦ ‘성별 정체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교육내용에 성 정체성의 의미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내용을 도입함	◦ 중학교 <인간 발달> 영역

3)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활동에 참여한 단체(28개)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 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연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그림 1> 성교육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처리내용

○ <그림 1>에서 성교육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처리내용<sup>4)</sup>을 보면, ‘동성애’와 ‘성정체성’ 항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만의 의견을 신고, 그 의견을 반영한 처리결과를 표시하였습니다. ‘동성애’와 ‘성정체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장이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성교육의 목적 자체가 도전받게 되었

4) 가톨릭대학교(연구책임자 정혜선), [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2014, p354-360.

습니다.

성 정체성은 보통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을 설명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주되게 사용됩니다. 트랜스젠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성 정체성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반대 단체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의 판단기준은 정확하게 말해서,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바꾸고자 하여 법원에 신청할 때 법원에서 이에 대한 허가를 위해서 참고하는 판단기준일 뿐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성별정체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역수행기관과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만을 반영하여 중학교 과정에서 성정체성과 성정체성 장애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다루는 큰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성교육, 가족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데이트 강간, 성폭력 대처 등 동성애와 성정체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소개하였으나 동성애와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소개조차 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성정체성을 다루는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미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3.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전달연수 내용의 문제점

○ 교육부는 2015년 2월 10일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달연수”를 시작하여 전국의 성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2월 23일 ~ 3월 13일까지 교육장, 학교장, 장학사, 교육과정 담당교사에게 전달 연수하고 3월 20일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전달 연수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학교 뿐만 아니라 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생활시설과 기관에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달 연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달연수” 용 PPT 자료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단지 요약,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 1) 도입배경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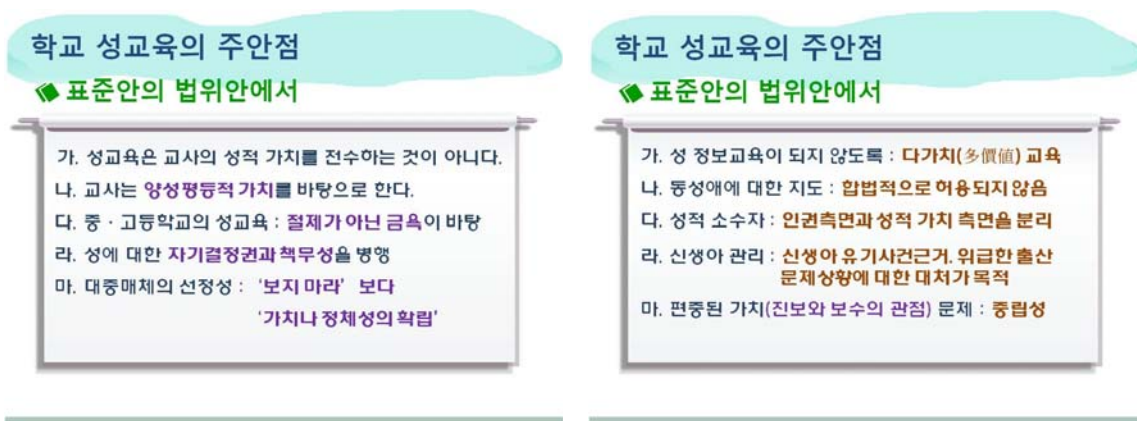
청소년이 예전보다 많은 수가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병렬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둘 간의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문화의 태도가 ‘개방적’인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인상을 주고, 독일이 20년 전 성교육 의무화를 하고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도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이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 2)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설명

전달연수용 자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성평등적 가치를 바탕으로

로 하고, 성 정보교육이 아니라 다가치 교육이 되도록 하며,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성을 견지하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제시하는 가치들만을 전달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배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전혀 중립적이거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편향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교육안을 국가수준의 표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적용하기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내용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은 절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림 2>

<그림 3>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에서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다루라고 제시하는 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은 이것이야말로 법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입니다.<그림 2,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금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이자 시대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지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어사용에 주의하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성욕구의 해소로 대처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자위행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성교육 표준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배경, 인종 등 취약한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가로막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따로 소개하면서 편향된 주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4, 5>의 나, 마 항목에서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성교육표준안에서 삭제 요구”, “성소수자의 내용 삭제 요구”라는 내용은 누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관계 또한 ‘다양성’을 배제하라고 하면서 1인 가족, 독신 가족의 용어 사용조차 제한하고자 합니다. 중학생의 성적 경험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활동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성교육인지를 반문하게 합니다.

<그림 6>에서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한 지원체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미혼부·모는 수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의도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고, 극심한 성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 7>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 또한 명시적 언급을 회피하고 ‘성 관련 감염병의 이해(예방)’로 수정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과 대처에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

❖ 사회적 쟁점의 성교육 내용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

가. 인간의 성적 반응(초고): 성 행동 영역에서 **삭제함**

나. 동성애의 도입 :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성교육표준안에서 **삭제 요구**

다. 중학교 결혼의 의미와 다양한 가족관계 :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로 수정함  
‘1인 가족’ 독신가족의 용어 사용에 신중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

❖ 사회적 쟁점의 성교육 내용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

라. 남녀 성적 반응의 이해 :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로 수정

마. 성 소수자의 인권 : 성 소수자의 내용 **삭제 요구**

바. 준비된 성 관계 :  
중학교에서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다루지 못함  
임신 예방교육의 측면에서 **피임**에 관한 지도

<그림 4>

<그림 5>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

❖ 사회적 쟁점의 성교육 내용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

사. 미혼모 학습권의 조례 :  
미혼모의 학습권을 비롯한 지원체계 이해  
미혼부모는 수용되지 않아 미혼모만 사용

아. 성욕과 자위행위 :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로 수정

자. 성과 관련된 법률의 이해 :  
아동 포르노 소지는 법률 위반  
성과 관련된 위법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지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

❖ 사회적 쟁점의 성교육 내용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

차. 노인의 성 :  
고등학교 교육은 공교육의 마지막 학습기회  
삶의 일환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성 교육

차. 에이즈 : 「성 관련 감염병의 이해(예방)」로 수정

카. 음란물 : ‘아동’이라는 용어가 음란물을 미화하는  
경향 **사용 금지**

<그림 6>

<그림 7>

이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육부에서는 전달 연수용 자료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마저도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4.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의 문제점

○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관점에서 보는 학교성교육표준안 내용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차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전달 연수용 자료를 통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해명을 하면서, “‘동성애’를 인권측면에서 지도하고 있고,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학교 교육은 사회적·문화적·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함)”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일수록 모든 학생을 포괄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누군가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누락되고 배제된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학생의 인권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사회적 합의”라고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기 이전에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될 성교육이라면 그 누구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 성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성별정체성(남성인지, 여성인지 등) 혹은 성적지향(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등)을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확립의 과정을 겪는 것은 자아에 대한 고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타인의 부당한 억압이나 침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학교와 가족 등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류와 다른 소수자들이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교육이 가져야할 포괄성, 다양성의 가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제대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서는 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보가 매우 취약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중등 6차시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형성’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p86)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중등 6차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내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상태로서 소속된 사회 문화와 연루된 태도, 행동 양식, 남성 및 여성과 연관된 속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물학적 특질을 말하는 성(sex)과는 구별된다.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성 역할(gender role)’이란 성 정체성에 대한 내적 감각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이다. 정상적으로 성

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인지하는 여성이 여성다운 말과 행동으로써 이를 외적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인지하고 있는 남자가 남성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성 정체성 장애는 자신의 해부학적 성과 성 역할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기본적인 특성이다. 원인에 있어 성 호르몬 등 생물학적 원인은 크게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사회·심리학적 원인이 우세하다. 즉 양육 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린이의 기질, 부모의 태도, 양육 방법,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장 과정 중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가 주가 되는 남근기 상태에 고착된 현상으로 본다.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추정하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위의 내용을 보면, 성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며, 주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질병으로 만드는 것은 반인권적 시각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역할이나 성별 표현과 같은 영역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을 무시하며, 사람마다 정의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여성다운’, ‘남성다운’ 같은 기준들을 마치 고정된 것처럼 교육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별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성차별을 강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 정체성 장애를 설명하는 대목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불편함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때로 호르몬 투여나 의료적 조치를 받는 트랜스젠더가 의학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아왔지만 최근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장애라고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학계에서도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갖는 이유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전혀 확립된 이론이 아니며, 성적 학대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 또한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설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부정확한 이론과 정보를 신고 있습니다.

○ 성에 대한 관점이 매우 협소하며,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자체를 윤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룸으로써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남녀의 관계(고등 1차시)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중등 1차시)

성-영혼적 영역-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예-낙태, 성적소수자, 미혼모 등)(중등 1차시)

성-정신적 영역-여성, 남성에 대한 자긍심(중등 1차시)

성교육은 남녀의 관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으로만 규정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롯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정체성과 즐거움을 깨닫고 다양한 성적 관계에서 주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성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인식하지 않고는 이미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성교육 또한 차별적인 관행과 인식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5. 국제인권기준 위반

국제인권기준에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으로서 일관되게 “포괄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교육을 제시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을 통해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교육을 건강권의 관점에서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의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아래에 예시한 국제인권규범과 배치되고 한국이 비준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1)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2010년 보고서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7/23/2010)<sup>5)</sup>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16, 20, 23번 항목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성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존중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교육 과정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관한 권리의 한 부분이다. 포괄적이기 위해서는 성교육은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이는 누구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6. Similarly,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that pleasure in and enjoyment of sexuality, in the context of respect for others, should be one of the goals of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abolishing guilt feelings about eroticism that restrict sexuality to the mere reproductive function.

20. Thus, the right to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is part of the right of persons to human rights education.

23. In order to be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diversity,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deal with his or her own sexuality

5)

[http://www.right-to-education.org/sites/right-to-education.org/files/resource-attachments/UNSR\\_Sexual\\_Education\\_2010.pdf](http://www.right-to-education.org/sites/right-to-education.org/files/resource-attachments/UNSR_Sexual_Education_2010.pdf)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 2)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2009년)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for schools, teachers and health educators(Dec. 2009<sup>6)</sup>)

유네스코에서 만든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성이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2.3 젊은이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성적지향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3.4 학교에서 시행할 때 “성과 재생산 건강, 성평등(성희롱을 포함)을 증진하고,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낙인과 차별을 포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시합니다.

## 3) 유엔인구기금의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

UNFPA Operational Guidance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 focus on Human Rights and Gender(2014<sup>7)</sup>)

유엔인구기금이 정의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권리에 기반하고 젠더에 초점을 둔 성교육”을 말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감정과 사회적 개발의 맥락에서 그들이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갖추고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젠더, 인종, 민족 또는 성적지향에 대해서 존중, 수용 관용, 공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NFPA defines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s a right-based and gender-focused approach to sexuality education, whether in school or out of school. CSE is curriculum-based education that aims to equip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the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that will enable them to develop a positive view of their sexuality, in the context of their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CSE empowers young people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behaviour and, in turn, treat others with respect, acceptance, tolerance and empathy, regardless of their gender, ethnicity, race or sexual orientation.

##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의 일반논평

### ○ 아동권리협약 4호 논평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sup>8)</sup>

6)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32/183281e.pdf>

7) <http://www.unfpa.org/publications/unfpa-operational-guidance-comprehensive-sexuality-education>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개발을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 민족, 사회적 지위, 빈곤, 장애, 또는 다른 지위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청소년의 배경에는 성적지향과 건강상태(HIV/AIDS와 정신건강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6. (a)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all human beings below eighteen enjoy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without discrimination (article 2), including with regard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These grounds also cover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 and health status (including HIV/AIDS and mental health).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all adolescents subject to discrimination are made more vulnerable to abuse, other types of violence and exploitation. Further their health and development are put at greater risks. Therefore they are entitled to special attention and protection from all segments of society.

○ 아동권리협약 14호 논평

General Comment No. 14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CRC/C/GC/14, 29 May 2013<sup>9)</sup>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통해서 아동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고, 아동이 다양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며, 성, 성적지향, 출신국가, 종교 그리고 신념과 같은 특성도 아동의 정체성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권리뿐만 아니라 정체성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V. A. 1. Element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 child’s best interests

(b) The child’s identity

55. Children are not a homogeneous group and therefore diversity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ir best interests. The identity of the child includes characteristics such as sex, sexual orientation, national origin, religion and beliefs, cultural identity, personality. Although children and young people share basic universal needs, the expression of those needs depends on a wide range of personal,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cluding their evolving capacities.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art. 8) and must be respected and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assessment of the child’s best interests.

8) <http://tb.ohchr.org/default.aspx?Symbol=CRC/GC/2003/4>

9)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GC/CRC\\_C\\_GC\\_14\\_ENG.pdf](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GC/CRC_C_GC_14_ENG.pdf)

○ 아동권리협약 15호 논평

General Comment No. 15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CRC/C/GC/15, 17 April 2013<sup>10)</sup>

아동권리협약 15호 일반논평을 통해서도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차별적 접근을 강조하며, 다른 많은 차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B. Right to non-discrimination

8.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right to health for all children,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children's health is not undermined as a result of discrimination, which is a significant factor contributing to vulnerability. A number of grounds on which discrimination is proscribed are outl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child's,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These also include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ealth status, for example HIV status and mental health.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any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might undermine children's health, and the implications of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should also be addressed.

5)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8/1/2011 7차)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up>11)</sup>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성교육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29.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10-hour compulsory course on sexual education and that it consider introducing a mor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programm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both girls and boys as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10) <http://www.refworld.org/docid/51ef9e134.html>

11) [http://www.refworld.org/publisher\\_CEDAW\\_CONCOBSERVATIONS\\_.4eeb46b62.0.html](http://www.refworld.org/publisher_CEDAW_CONCOBSERVATIONS_.4eeb46b62.0.html)

## 6. 결론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이하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입장은 이 표준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표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과 재생산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획득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 표준안의 목적이 금욕을 강조하고, 양질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잘못된 지식과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포괄성과 다양성을 확보할만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존중해야 할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부 종교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등 편향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각급 학교와 기관에 표준안이 전달되는 전달 연수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미 교과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했으며 시대착오적인 내용도 있어서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표준안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성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빠짐으로써 성적 정체성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게 되었고, 낙인과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일부에서 성적정체성을 다루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담음으로써 오히려 낙인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의학적으로 성적정체성장애로 진단되긴 하지만 단순히 건강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로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성역할과 성별규범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며,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성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멤버이자,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걸맞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장애·비장애통합성교육에 대한 의견서

(사)탁틴내일

올해 초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표준안의 성교육 내용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해 없이 제작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아우르는 통합성교육입니다. 특히 장애 학생이 속해 있는 일반학교 내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함께 성교육 하는 것이 장애·비장애 통합성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들이 성적존재로서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준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학급을 위한 성교육 교사용지도서: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 세상, 2012)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이하 표준안)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 된 이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맞는 성교육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고려 없이 제작된 현재 성교육표준안을 기본으로 학교 내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장애학생들뿐 아니라 비장애학생의 성가치관, 성적 권리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성적 행동과 성적발달은 부모나 교사의 무지 및 무관심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외시 되어 왔습니다. 금번의 표준안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성인권 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여 이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표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표준안의 도입배경을 보면 「성교육표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 성교육 내용의 계열화이다. 학교급별, 학생발달단계별로 위계가 고려된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는 성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성의식과 성 가치관을 지니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규범을 실천하며 이를 행동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해 없이 학교급별, 학생발달단계별 위계만을 고려함

### ○ 결혼, 부모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을 강조하고 있음

초등고학년 지도서(95p) 결혼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여 연상되는 단어 알아맞히기

(드레스, 여행, 택시도, 반지, 시계, 원앙금침, 사랑, 연지곶지 등). 제시된 단어 이외에 ‘결혼’하면 떠오르는 단어 발표하기

⇒ 1.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결혼 확률이 낮은 현실에서 사춘기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생리, 성호기심, 성욕구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없이 결혼, 부모되기가 강조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 위축되고 성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 불임(예, 다운증후군 남성)으로 인해 출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2. 결혼, 부모되기, 출산, 자녀양육의 경우 지금의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 역할, 자녀역할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부모의 삶을 통해 학생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도록 하여야함.

3. 결혼 관련 단어 예시가 형식적인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혼을 선택하는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

4.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함. 생활시설, 그룹홈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없음

### ○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의 구분이 강조됨

초등고학년 지도서 (92, 104p)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편견은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다른 친구와의 차이를 알고 서로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킨다면 건전하고 멋진 이성 친구의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편견은 버리면 멋진 이성 친구의 만남을 강조하기보다 남녀구분 없이 친구로서 우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루어야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또래관계 형성이 어렵고, 부적절한 친밀감 표현(예, 안아준다거나 특 특 치는 행동 등)이 상대방 친구에게는 성행동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래 친구들과의 친밀감표현,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 특히 학교 밖에서 또래 친구들과 여가문화를 즐길 기회가 부족함으로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건전하고 멋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랑의 감정이나 성적인 느낌은 데이트, 사랑을 주제로 구분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폭력피해자가 주의하여야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 유발론을 강화하고 있음.**

중학교 지도서(222p) 이성교제 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 '밤늦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 말라', '피해자의 거절과 아니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성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주변 도움이나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한다. 성폭력은 사회의 문제인데 성폭력피해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중학교 지도서(222p)는 우리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잘못된 성교육과 사회의 성인식으로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발론의 잘못된 성폭력통념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인양 그릇 해석되고 그 결과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교육부의 표준안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반인권적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모두가 성적 주체로 당연히 성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표준안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발로 뚫은 분야별 전문단체나 교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의 의견서

### 인권친화적 학교+ 너머 운동본부

그동안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해 받아온 성교육은 거의 무의미한 교육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실질적 정보도 없고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무지할 것만을 요구하는,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성 통제’ 교육에 가까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 표준안 내용을 보면,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표준안의 내용에는 청소년기에는 금욕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 금기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건전한 이성교제’를 강조하면서 청소년기의 성적 행동에 낙인을 찍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표준안은 일선 학교의 성교육을 지금보다도 더 무의미한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일부 열정적인 성교육 강사들에 의해 조금씩이라도 행해져 왔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교육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본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청소년의 성을 문제행동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청소년의 성 행동은 문제행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교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학교성교육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의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성 교제 예절) 옷차림은 평범하고 단정하게 하기, 지나친 감정 표현이나 스킨십 자제하기, 감정을 자극하는 비디오나 인터넷 안 보기’

‘이성교제의 어려운 점: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있음, 성 충동으로 인하여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이성 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혼전 임신, 성폭력, 청소년 비행, 학교 중도 탈락’  
(중학교 성교육 자료, 8차시 ‘바람직한 이성교제’ 중)

‘성 욕구를 성관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학교 성교육 자료, 15차시 ‘성 욕구의 조절’ 중)

‘이성교제 예절: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이나 교복을 입기,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완성 단계이므로 일시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 7차시 ‘건전한 이성 교제와 예절’ 중)

‘건전한 성 욕구 해소 방법: 운동,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봉사 활동, 문화 활동, 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화제를 갑자기 바꿔 봄, 이성과 단 둘이 만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음’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 16차시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 중)

지난 2월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있었습니다.

- 표준안을 넘어선 실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자 관찰 등의 실습을 하지 말 것
- ‘남녀의 성적 반응의 이해’를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로 용어 변경
- ‘자위행위’를 성 욕구의 해소로 용어 변경
- 인간의 성적 반응에 대한 내용 삭제
- 준비된 성 관계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직접적 활동으로 다루지 말 것
- 준비된 성 관계에 대한 교육은 임신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것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본 표준안은, 이미 인간으로서 사랑과 연애를 하고, 성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의 실제 삶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이미 이 표준안을 발표하며 ‘중학생의 2.1%, 고등학생 6.5%가 성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본 성교육 표준안은 ‘성 통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성 자체를 삭제해버리려는 이때까지의 성교육에서 내용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으로 학교 성교육을 더 보수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인간이고, 특히 성적으로 활동적일 수밖에 없는 연령층의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성 욕구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살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당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을 성적인 존재이자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 성교육은 결국 ‘하지 마라’는 명령과 성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킬 뿐입니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교육에서 청소년은 주체적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표준안을 낸 교육부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따라 행해질 성교육이 과연 학생들에게, 이미 연애와 사랑을 하고 성적 실천들을 하고 있는 성적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한부모 가족 단체의 의견서

인트리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비혼여성 단체의 의견서

언니네트워크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학교내 성교육 교사 모임의 의견서

YMCA 성교육교사



## ○ 제 목 : 교육부<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민원신청의 건

### ○ 내 용 :

수신자 : 교육부장관

경 유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제 목 : 교육부<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민원신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대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HIV/AIDS를 예방하는 동시, 감염인의 복지인권증진과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교육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표준안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성/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새롭게 HIV 감염된 사람 중 청소년(15-2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표준안의 HIV/AIDS에 대한 교육은 개념 정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 2004년 12명이었던 10~19세 신규 감염인이 2013년에는 53명으로 집계돼 10년 새에 4.5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성인의 감염 증가율 1.7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HIV/AIDS 감염은 성인에 비하여 그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이 시기의 HIV/AIDS 에 대한 교육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HIV/AIDS는 이제 관리만 잘하면 평생 동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지만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표준 교육과정 내의 내용에는 여전히 '불치병, 사망, 공포, 문란' 등의 표현이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30년 전의 HIV/AIDS 발견 초기의 편견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으며 이는 적극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구체적 증상 나열은 공포심만 부추길 수 있으며,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증상 나열 보다는 감염경로와 예방법, 치료 및 인권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IV/AIDS의 효과적인 예방법 중에 하나는 올바른 콘돔 사용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된 내용이며, 생명 보호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콘돔 사용은 매우 의미 있는 성 행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 과정 내에서는 콘돔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교육 과정 내의 워크

북에서는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사용방법, 콘돔 교육용 교구를 사용하여 체험한 후 느낌을 적어보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표준안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한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므로 실질적 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내용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본 협회는 성평등 인식을 후퇴시키고 차별행위를 야기하는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시행을 중단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인식과 성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면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청소년층의 신규 HIV 감염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등 교육 과정에서 HIV/AIDS **개념 정리를 넘어선 구체적인 감염경로, 예방법을 다루어** 실질적인 청소년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HIV/AIDS에 대한 **증상 나열이나 막연한 공포심을 부추길 수 있는 부정적인 용어(문란, 공포, 사망 등) 사용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예방법, 치료, 감염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3. 현재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콘돔은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성교육표준안]의 준비된 성관계에서 중학교에서 직접적인 활동으로 다루지 못하게 한 점, 또한 임신 예방 교육의 측면에서 지도하도록 한 점은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중학교에서도 콘돔 사용은 직접적 활동으로 다루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신을 넘어선 성 건강 및 HIV 감염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서 접근하도록 [성교육표준안]을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